

종교교육학연구 제50권. pp.71-9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2. 28.

원불교의 새로운 종교교육 비전: 성찰과 전망*

김 귀 성

원광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한국종교교육학회 창립20주년(2015)을 맞이하여 원불교의 종교교육 접근의 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연구 활동과 공교육 및 사회적 확산 등의 제반 활동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전을 제시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보다 명료히 하면서 공동연구 및 학제간 연구를 제안해본다. 둘째, 학문공동체에서 종교교육 일반에 적용 가능한 이론과 실재를 탐구하는데 보다 균형을 이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셋째,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보급에 대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방법론의 정교화이다. 종교교육학 연구의 지형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연구 외에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등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보다 정교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 인프라의 확충이다. 학문공동체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함께 공유되어야 할 인적, 물적 기반의 확충이 절박하다. 특히 종교교육 관련 인적 자원의 확충,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S/W의 개발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된 인성교육에 대해서 대상별 다양하면서도 적용 가능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종교교육을 접근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핵심주제어: 종교교육학, 연구 활동, 공교육에서 종교교육, 원불교, 종교교육 프로그램

* 이 논문은 한국종교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2015.5.15/가톨릭대학교)에서 발표된 후 수정, 보완된 것임.

I. 서론

2015년은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출범(1995년)한지 만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종교교육학이 학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된 후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다.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종교교육학연구』도 발행권수가 50권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학에 대하여 학계는 물론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적인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교육학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한국종교교육학회가 독점해 왔다거나 그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웃 학회인 종교학계를 비롯하여 여러 학술단체에서도 다양하게 접근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교육학회는 종교교육 현상에 대하여 특정 종파 입장을 떠나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문 공동체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제 학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제반 학문 공동체의 활동을 성찰하고 지남을 얻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학술 단체가 창립되어 성장하기까지에는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요구된다. 더욱이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학문에 대한 열정, 참여, 재정적 지원 등이 그 토양을 이뤄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학회는 평지 조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회 창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학회발전의 초석을 다져준 박선영 초대 회장의 역할이 그 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교교육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담은 선행 연구로는 몇 편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¹⁾ 이 가운데 손원영·김지혜(2005), 정혜정(2005) 등 두 편의 선행 연구는 종교교육학회의 2005년도 학술대회 차원에서 접근된 결과물 들이다. 특히 손원영·김지혜(2005)의 사례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종교교육학 연구에 대한 분석이라면 정혜정(2005)의 그것은 불교적 측면에서 연구동향과 과제를 각각 다룬 바 이다. 반면에 유재봉(2005)의 그것은 한국교육철학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하위 주제로 종교교육을 다뤘었다. 이 점에서 앞선 사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석 대상의 표집에 한계가 발견된다. 한편 오인택 등(2001)의 연구는 한국교육철학 및 교육사의 연구 주제, 연구자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서 종교교육을 하위 분과로 다뤘다는 점에서 여타 선행 연구에 비해 범위와 깊이가 차이가 있는 과제형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종교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사적 검토와 아울러 원불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검토한 사례는 과제로 남겨진 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교교육학의 연구 성과 속

1) 손원영·김지혜, 「종교교육학 연구의 분석적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오인택·김창환·윤재홍, 『한국 현대교육철학과 교육사학의 전개』(서울: 학지사, 2001). 유재봉, 「종교와 도덕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철학 40년」 『교육철학』 33(서울: 한국교육철학회, 2005). 정혜정의 「종교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2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등을 들 수 있음.

에서 원불교의 종교교육 연구 성과와 과제 그리고 공교육에서 종교교육과 사회적 확산 노력 등에 대한 분석과 성찰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분야 및 사회적 확산 분야는 선행연구, 학술지, 한국 학술정보서비스(KRISS)를 통한 논저 자료 그리고 관련 자료 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내용 일부는 위의 자료와 함께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비구조화된 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²⁾ 이들 자료를 기초로 원불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종교교육의 학문적 지향 및 실제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끝으로 여기서는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된 논의는 제외했음을 밝힌다. 그 이유는 종교교육학이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정규 학과로 설립되어 교육, 연구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유관 학과에서 종교교사 양성기관만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술연구 재단의 학문분류 체계에 의하면 종교교육은 아직도 사회과학, 교육학, 종교교육 등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³⁾

II. 원불교 종교교육의 성찰

1. 유관 학술단체의 학술활동과 원불교 종교교육 연구

한국종교교육학의 지난 20여 년간 학술활동에 대한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종교교육학회 설립의 배경을 들여다보자.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창립 경과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회 창립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가 수년전부터 몇몇 교수 및 학계 인사들과 더불어 불교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와 교육과의 관계 그리고 교육의 종교적 차원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학문탐구 공동체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그 기회와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⁴⁾

위의 보고에 의하면 분명 학회 창립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와 교육의 관계, 교육의 종교적 측면에 대한 탐구를 선언하고 이뤄졌다. 물론 창립 당시의 이런 취지는 소중하게

2) 여기서 현장교원은 원불교의 교립학교(고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들로 주로 2014년도 겨울방학 중(1월 24일, 금)을 이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종교수업과 관련된 면담 실시함.

3) 교육부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에 의하면 “종교”교사양성 기관은 종교교육학과는 발견되지 않고 다만, 일반대학의 교육과에 기독교교육과(5개 대학), 교직과정 설치대학(20개 대학), 교육대학원(7개 교대원)등으로 확인됨. 아직도 한국연구재단의 종교교육에 대한 학술 연구 분야 분류는 사회과학(대), 교육학(중), 분야교육(소), 종교교육(세부분류)으로 편성되어 있음(2015년 7월 현재).

4) 김용표, 「한국종교교육학회 창립 경과보고」 『종교교육학연구』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5), 144쪽.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학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학의 탐구를 어떻게 수용하여 학술연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는 과제로 남는다. 설사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학의 탐구라 할지라도 연구대상을 불교라는 특정 종교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종교 상황에서 다양한 접근을 열어 놓은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설립취지에 보다 접근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물론 국내에 종교교육을 탐구대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술단체나 학술지는 다양하다.⁵⁾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 학회나 학술지가 모두 종교교육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종교일반 또는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학술지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밖에 관련 연구단체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한국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종교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해외의 경우 종교교육 관련 학회 및 학술지가 존재하지만 그 이면의 성격은 특정 종교적 성향을 기저로 삼고 있는 점이 분명하다.⁶⁾ 먼저, 국내에서 각 학술공동체들이 종교교육과 관련한 국내 학술대회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한 내력을 주제, 일시, 주관 학회, 학술지별로 정리하여 소개하면 아래 <표 1>—<표 2>와 같다. 이들을 반추해 보는 것은 여기서 원불교 종교교육이 연구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표 1> 국내 학술대회에서 종교교육 주제(발표자) 동향(1985-2011)

순번	주 제(발표자)	학술대회	주 관
1	대주제: 종교교육(학술대회) 다종교다문화속에서의 종교교육(윤이흠) 대학과 종교교육(길희성), 종교교육의 현실(류병덕) 종교교육의 실태(정진홍)	1985년 (학술대회)	종교학회
2	대주제: 종교정책과 종교교육(학술대회) 한국의 종교교육(고병철), 한중일 삼국의 종교교육정책 비교(류성민) 종교교육학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김재영)	2006년 (추계학술대회)	종교학회

5) 예컨대 학회(연구소)와 학술지로는 한국종교학회 『宗教研究』(1970년 창설, 75집 간행-2015.1기준), 기독교의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기독교교육정보』(2000년 창설, 44집 간행-2015.1기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연구』(1961창설, 41집 간행-2015-1기준), 기타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1999년 창설, 31집 간행),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1974년 창설, 62집 간행-2014.12 기준)를 비롯하여 한신대 종교와 문화연구소 『종교문화연구』, 서강대신학연구소 『신학과 철학』, 대진대 대순사상연구원 『대순사상논총』, 선문대 통일신학연구원 『통일신학연구』 등을 들 수 있음.

6) *Religious Education*(1906년, 계간, 美 종교교육학회),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1934, 英, 년3회, Rout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1924, 美,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등을 들 수 있다.

	대주제: 한국 교육사에서 종교와 교육의 관계 한국고대 교육사연구와 불교지성으로서 고승(안경식) 전근대 교육사에서 일본 불교의 전개(大戸安弘) 문묘향사 제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교육의 종교적 측면(박종배) 중국의 근대교육과 서구의 영향(田正平) 근대교육 정신으로서의 기독교 수용(이은송) 근대교육에서 종교와 교육의 관계(이명실) 한국 근대미션스쿨(이성전) 해방 후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쟁점과 전개(김귀성) 탈현대사회와 교육에서의 종교성 회복(정재걸)	200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 교육사학회
3	주제: 한국종교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김재영) 공립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방안(강돈구)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실시방안(안 신)	2011년 (세미나)	문화체육 관광부
4	대주제: 공교육에서 종교교육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김귀성) 공교육에서 개신교 학교 종교교육의 희생(한미라) 공교육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방향모색(구본만) 토마스 머튼의 종교교육론(한철희) 소셜미디어의 종교교육적 활용(전영미) 종교교육을 위한 대안적 교육으로서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원신애)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미래(류상태) 영국다문화 종교교육의 최근동향과 전망(안신) 유아교육기관에서 기독교교육실천에 관한 논의(김성원)	2011년 (춘계학술대회)	한국기독교교 육정보학회
5	대주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류성민) 한국공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쟁점(고병철) 영국 종교교육의 특징과 다양성(안신) 일본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현경) 공립학교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김귀성)	2013년 (춘계학술대회)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6	주제: 종교문맹과 종교교육(류성민)	종교다시일기 (2013.11.14)	한국종교 문화연구소
7	주제: 종교교육자유 심포지엄	2006.6.16	기독교학교교 육연구소

<표 2> 관련 학술지의 종교교육 연구 동향(1986-2011)

순 번	주 제	연구자	게재 학술지,권호 (년. 월)	발행처
1	다종교 다문화속에서의 종교교육	윤이흠	종교연구2(1986.12)	종교학회
2	공교육과 종교교육	정진홍	종교연구2(1986.12)	
3	도덕발달을 위한 종교교육	제석봉	종교연구19(2000.3)	
4	청소년기 회심과 자아정체성 형성의 상호역동성에 관한 연구	이규민	종교연구23(2001.6)	
5	한일 불교계 대학의 종교교육 비교	김귀성	종교연구 (2004.9)	
6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재개발	김귀성	종교연구29(2002.9)	
7	한국의 종교교육	고병철	종교연구46(2007.3)	
8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안 신	종교연구46(2007.3)	
9	미국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	이혜정	종교연구47(2007.6)	
10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강돈구	종교연구48(2007.9)	
11	잉글랜드와 웨일즈 종교교육의 최근변화와 그 한계	안신	종교연구47(2007.6)	
12	종교수업에서 동기유발의 필요성과 전략	김철주 고병철	종교연구47(2007.6)	
13	다문화사회와 종교	신광철	종교연구59(2010.6)	
14	한국이주민2세의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과제	오현선	종교연구60(2010.9)	
15	국가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교육	고병철	종교연구61(2010.12)	
16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강돈구	종교연구62(2010.12)	
17	종교단체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박종수	종교연구63(2011.6)	
18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교교육에 대한 고찰	김 훈	신종교연구24(2011)	신종교학회
18	대순사상에서 종교교육과 인권	윤재근	신종교연구27(2012)	
19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한국공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쟁점 영국 종교교육의 특징과 한계 일본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류성민 고병철 안 신 이현경 김귀성	종교문화연구20 (2013.6)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공교육에서 개신교 학교 종교교육의 희생 공교육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방향 모색 소셜 미디어의 종교교육적 활용(전영미) 종교교육을 위한 대안적 교육으로서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	김귀성 한미라 구본만 전영미 원신애	기독교교육정보30 (2011.9)	한국기독교 교육정보 학회

위 <표 1>—<표 2>를 보면 학술 대회나 연구 결과에 나타난 대체적인 동향은 특정 종교에 기초한 연구에 비해 공교육과 관련된 주제나 내용이 지배적인 편이다. 이는 학교에

서 종교교육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를 보면 당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학생인권조례, 종교자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등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유관 학술단체의 종교교육 연구 활동 속에서 원불교 종교교육 연구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다뤄진 주제도 고등교육 및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등의 주제만 제한적으로 확인될 뿐이다. 한편 원불교 종교교육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동안 종교교육학회의 학술대회 및 연구동향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한국종교교육학회(KASRE)의 학술대회 주제별 분류(1995-2015)

순 번	학술대회 연월일	학술대회 주제(개최 장소)	비 고
1	1995. 6.24	현대 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동국대)	학회창립기념학술총회/ 초대박선영 회장
2	1996. 8.30	종교와 인격교육(동국대)	
3	1997. 6.20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동국대)	2대 박선영 회장
4	1997.11.28	여성에 대한 종교의 사회 교육적 기능(동국대)	
5	1998. 5.5	종교와 청소년의 심성교육(대진대)	
6	1998.10.30	정보사회와 종교교육(동국대)	
7	1999. 6.18	다종교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원광대)	3대 박선영 회장
8	1999.12.17	한국의 종교와 사회적 기능(동국대)	
9	2000. 5.19	한국인의 전통 가정교육사상(동국대 경주)	
10	2000.11.24	개벽사상과 종교교육 (대진대)	
11	2001. 6.08	한국의 종교와 대학의 교양교육(동국대)	4대 박선영 회장
12	2001.10.26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동국대)	
13	2002. 5.3	사회변동과 종교교육(동국대)	
14	2002. 11.22	정치와 종교교육(대진대)	
15	2003. 5.30	한국인의 정체성과 종교교육의 과제 (강남대)	5대 박선영 회장
16	2003.10.25	대중문화와 종교교육의 과제(동국대)	
17	2004. 5.15	동·서종교교육의 만남(동국대)	
18	2004.11.12	죽음, 종교 교육적 접근(선문대)	
19	2005. 6.3	지구윤리와 종교교육(광주대)	6대 김용표 회장
20	2005.11.11	종교교육학 어떻게 할 것인가(동국대)	
21	2006. 6.3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가톨릭대: 해화동)	
22	2006.11.10	종교자유와 종교교육(동국대)	
23	2007. 6. 1	종교교육과 예술(동국대 다량관)	7대 김용표 회장
24	2007.11.11	종교 창시자의 교육방법-현대 교육적 의의(대진대)	

25	2008. 5.23	종교교사 양성과 평가의 과제(원광대)	
26	2008.11.14	영성계발과 종교교육의 과제(선문대)	
27	2009. 5.22	종교와 아동교육(동국대 경주)	8대 김용표 회장
28	2009.11.13	인간의 욕망과 종교교육(가톨릭대 부천)	
29	2010. 5.28	대화방법과 종교교육(성공회대)	
30	2010.11.12	종교교사 양성제도와 종교교재연구, 지도법(수원대)	Maarren Meijer발제
31	2011 6.10	다문화사회와 종교교육(원광대)	9대 김귀성 회장
32	2011 11.11	새로운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종교교육 교과서 개발(용산, 하이원 빌리지)	磯岡哲也(日,淑徳大)
33	2012. 5.18	종교교육과 인권 그리고 종교교육(대진대) D L.Moore(美. Havard Univ),眞田芳憲(日,中央大),金永完(中,山東大), Sem Vermeersh(Belgium/서울대)의 9명 발표.	국제학술대회
34	2012. 11.16	종교교육과 대안교육(동국대)	
35	2013. 5.24	성, 종교, 종교교육(선문대)	10대 김귀성 회장
36	2013.11.22	영성계발,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원광대)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HK)와 공동개최
37	2014. 5.16	학교에서 생명윤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가톨릭대)	
38	2014.11.14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서울대)	
39	2015. 5.15	종교교육의 비전: 성찰과 전망(가톨릭대)	11대 최준규 회장 (김수환추기경연구소와 공동개최)
40	2015.11.13	종교교육은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인가: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모색(원광대)	

<표 4> 『宗教教育學研究』의 宗團 및 접근방법 별 연구동향(1995-2015)

연 도/ (학술지권수)	발표 주제											총 계	접근 방법	비 고
	B	C	P	W	D	U	S	Co	CD	RE	O			
1995(1)	4										2	6	H	창립학회
1996(2)	2	1	1	1	1	1						7	H	
1997(3-4)	2		1	1	1		1	1	1	6	1	15	H	
1998(5-7)	4	1		2	2			2	2		8	21	H	
1999(8-9)	9	2	2	3	2			2	2	2	1	25	H	
2000(10-11)	6	1	1	1	1		1	2	1		5	19	H18 Qn1	
2001(12-13)	6	4	3	3	1			3	3	3	1	27	H	
2002(14-15)	6	1	1	2	3			1	2	2	6	24	H	
2003(16-17)	3	1	2	1	2		2	3	1	8		23	H	
2004(18-19)	3	4	1	1				2	2	4	3	20	H18 Qn2	
2005(20-21)	7	3	3	1				1		3	5	23	H20 Qn3	
2006(22-23)	10	1	2	1	1			2		3	1	21	H20 Qn1	
2007(24-25)	6	2	3	2	1		1	2	4	2	8	31	H28 Q1 Qn2	
2008(26-28)	9	5	1	1	1	1				10	3	31	H25 Qn6	
2009(29-31)	10	4	4	2	1	2		1	1	1	1	27	H21 Q1 Qn5	
2010(32-34)	11	1	9	2	4	1			1	5	5	39	H35 Q2 Qn2	
2011(35-37)	6	8	4	3	2	2		1	1	2	2	31	H27 Q1 Qn3	
2012(38-40)	3	4	2	4	1	5				4	4	27	H23 Q1 Qn3	
2013(41-43)	3	1	1	4	3	2			1	3	3	21	H17 Q1 Qn3	
2014(44-46)	4	3	3	2	2	3			1	2		20	H25 Qn5	
2015(47-49)	3	2	8	1	2	2				1	2	21	H:16 Q1:2 Qn:3	
계	117	49	52	38	31	19	5	23	23	61	61	479	H : 429(90%) Q1 : 10(2%) Qn : 40(8%)	

*약어표기: B:불교 C:가톨릭 P:개신교 W:원불교 D:대순진리회 U:통일교

RE:종교교육 일반 Co:유교 S: 무교 CD:천도교 O:기타/ H: 인문학적 접근

Q1: 질적 접근(Qualitative approach). Qn: 계량적 접근(Quantative approach)

위의 <표 3>-<표 4>를 보면 연구 주제는 매우 다양한 주제로 각 종단별로 발표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대회(39회), 학술논문(479편)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양적 성장을 확인케 해준다. 특히 <표 3>에서 학술대회의 주제에서는 불교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교교육 일반, 기타,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대순진리회, 동학, 유교 순으로 많은 발표가 이뤄졌다. 연구방법론에서는 인문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지만 양적 연구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5년 146편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것에 비하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 기준 3배 정도의 양적 성장을 보였다. 한편 이들 연구 성과에 대해 몇 가지 준거를 적용해 보면 반추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를 테면, 학술 대회와 연계된 논문 발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학술논문의 질적 심화), 설사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학교와 정부, 사회, 학부모, 종단이 공유하는 접근이었는지?(사회적 공유), 연구자 공동으로 접근하는 연구인지? (공동연구), 그리고 국내외 공동 연구를 하는 노력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국제화)등은 과제로 제기해 볼 수 있다. 비록 원불교의 종교교육 연구 활동은 평균치(39회)정도 이지만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춰 보면 원불교의 경우도 한계는 있다. 따라서 향후 원불교의 새로운 종교교육 비전도 위의 반추 결과와 관련하여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2. 원불교 종교교육 학술활동

원불교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동향을 한국학술정보서비스(KRISS)에서 주제어 원불교의 종교교육 또는 마음공부, 영성교육 등을 검색하여 분석한 바 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원불교 종교교육 주제 및 연구 방법별 동향

연도별	구 분		주 제 별																									연구 방법	
	학 위	일 반	S E	R E	D E	M S	S E	H E	L E	W E	C E	R R	B E	L L	Y E	C C	A E	P E	M C	H H	H R	E E	U E	D D	I E	계	양 적	인 문 문	
1980-1990		5					1						2			1				1							5		5
1991-2000	1	22	1	1		1	1	2	2	1		1	3		3		1			1			1				19	2	21
2001-2010	3	24	4	1		4	5					1	5	1		1	1	1				1	2	1	1	29	5	22	
2011-2015		15	1	1	2	5	1	1			1		2				1		1		1						17	3	12
계	4	66	6	3	2	10	8	3	2	1	1	2	12	1	3	2	3	1	1	2	1	1	3	1	1	70	10	60	

* 약어 표기: SE: 영성교육, Re: 종교교육, DE: 죽음교육, MS: 마음공부, SE: 학교교육 HE: 인성 및 인격교육, LE: 지도자 교육, WE: 여성교육, CE: 교화, RR: 교육개혁, BE: 불교 및 원불교, LL: 생명교육, YE: 청소년 심성교육, CC: 유아교육, EE: 지구 환경교육, UE: 고등교육, DD: 대화, IE: 정체성, AE: 대안교육, PE: 정치와 종교교육, MC: 다문화사회, HH: 가정교육, HR: 인권.

위의 <표 5>에서 보듯이 원불교의 종교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보면 1990년도 이후 연

구물의 양적 증가가 발견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원불교 및 불교, 마음공부, 학교교육 순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연구방법에서는 질적 및 인문학적 접근방법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가운데 특히 근래 주목을 받는 마음공부 관련 주제어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 동향만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마음공부 관련 논문의 하위 요인별(구분 및 연구 방법)동향(1980-2015)

연도별	구 분			연구 방법				기 타
	학위 논문	일반 논문	계	양적 연구	인문 연구	질적 연구	계	
1980-1990	-	-	-	-	-	-	-	
1991-2000	1	-	1	-	1	-	1	
2001-2010	21	4	25	19	3	3	25	
2011-2015	7	13	20	9	7	4	20	
계	29	17	46	28	11	7	46	

<표 6>과 같이 마음공부라는 표제어로 분석된 논문 총 46편 가운데 학위논문이 일반논문 보다 많았고 양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 다른 접근 방법에 비해 많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원불교 내 종교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육학회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별로 연구물이 출현된 것은 학회의 기획논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도별로는 1990년대 이후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다. 셋째, 학위논문은 2000년대 이후 주로 계량적인 접근을 통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학술지의 경우는 대부분이 『종교교육학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에 수록된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상의 연구 동향의 분석을 기반으로 원불교의 새로운 종교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를 비롯하여 질적, 양적 접근의 연구 출현을 제안해본다.

3. 원불교의 공교육에서 종교교육

주지하듯 국내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은 관련 법규의 지배를 받고 있다.⁷⁾ 따라서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특히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종립학교에서만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특정 종

7) 예컨대 <교육기본법>제4조,6조,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6조, 『2015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별책 19]2015.9.23), 학생인권조례, 법원의 판례 등을 들 수 있음.

교를 위주로 한 신앙 위주의 종교교육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부인키 어렵다. 비록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종교학이라는 학문에 기초한 교양교육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별 종교의 신앙위주의 종교교육이 병존하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듯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현장의 종교과 교육이 서로 간극을 보이는 것은 교과서 개발 및 활용, 교사 양성 및 임용에 까지도 예외 없이 발견된다. 최근 공포된 2015 교육과정에서 고교 교양 과목인 “종교학”에 “성찰적 종교교육 모형(Reflective education about religion)”의 적용, 다종교 다문화사회와 종교 등 부분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노력은 확인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교육과정 체제 내에 잔존해 있다.⁸⁾ 원불교와 같이 개별 종교의 교육과정 내 차지하는 위치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는 비단 교육과정 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서 개발, 교사양성 및 재교육 등에 까지 파급되는 문제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둘째, 중등학교에서 종교과 교원 양성체계의 문제이다. 현재 종교과 교원양성 체계는 학부와 교육대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무엇보다 교원양성과 임용의 비대칭구조가 그 어떤 교과보다 심하다. 자격은 부여되어 있지만 임용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됨으로 인하여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사연수 체제에 걸맞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 점에서는 원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2015-2017) 결과에 따라 비사범계 교원양성체제에 의존한 “종교”교사 양성체제도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셋째, 교과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교재 개발 과제의 문제이다. 이미 교과서를 포함한 교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공통적이고 일반화된 교재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 특정인이 특정 종교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하여도 이 교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은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발 빠르게 교재개발에 임하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체제의 취약, 낮은 현장 활용 가능성

8) 2015 교육과정 종교학 교육과정의 체제 내에 풀어야 할 과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교양 교과 영역에 속하여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구성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급별 교육목표와 종교학에서 가르치는 목표 간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2) 교과의 명칭도 “종교학”이라고 되어 있어 이런 학문 지향적인 교과 명칭이 교양과목 성격의 명료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등교육이 지향하는 일반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3) 교과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현학적이다. 4) 영역7 개별종교들의 이해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는 개별종교를 위주로 한 종교교육을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따라서 영역의 성격, 내용, 체계 등 전반에 걸친 지침이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5 “종교학” 교육과정에서는 “종교와 연관된 지식, 경험, 생활 등에 관해 스스로 성찰 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이런 성찰적 안목과 태도는 종교에 관한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뿐 아니라 자발적인 실천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교문해능력, 비판적 성찰능력, 의사소통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 사회적 실천 능력 등의 핵심역량과 여섯 가지의 세부목표(인간과 종교의 관련성 이해, 종교현상의 구조 이해, 종교 세계관이해, 종교사의 흐름 이해, 종교 주요문제 이해, 종교의 윤리적 태도 이해 등)간의 관계가 모호하다.

등 교과서 개발에 난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여 교과서가 개발되었다면 현장에 활용을 전제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난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과서 등 교재 개발을 개인 보다는 학회나 공동 집필자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적어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인문학적 교양교육이나 또는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배경에는 선교위주의 종교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공유지대를 갖는다.⁹⁾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활용 등이 실다옴게 학교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학계와 현장교사, 정부,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간의 적절한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조계종에서는 최근(2015.3.12) 초·중·고 개편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폭 넓게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윤리, 역사, 교과서 등에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기술, 교육되고 있는가를 조사, 연구하는 활동을 펴고 있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춰 교재개발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⁰⁾ 원불교의 교립학교에서 종교교육 관련 교재개발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움직임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 공포에 부응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재 개발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는 교양교과로서 종교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교문화의 이해보다는 특정 종교의 선교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¹¹⁾ 비록 대학마다 사례는 다르겠지만 종교계 대학은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교재과목으로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편입,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계 대학에서 이들 종교와 관련된 교과목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써 종교 관련 과목을 이수토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교나 교세 확장의 명분 보다는 종교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에게 까지도 의미 있는 교양과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더 요구받는다. 원불교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9개교), 고등학교(10개교), 전문대학(1개교), 대학원 대학교(1개교), 대학(2개교) 등 총 23개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원불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종교학”교과 교육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 지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원창학원에서 비형식

9) 고병철은 종교교육의 인문학적 모형을 제안하는(고병철, 「한국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2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35쪽. 한편 김귀성 등은 종교교양교육 모형을 제기함(김귀성·류성민·고시용, 「종교교양교육의 활성화 방안」 『종교교육학연구』 4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39-140쪽.

10) <초·중고 교과서 불교오류 종단차원서 대응>, 《법보신문》, 제1284호(2015.3.4)

11) 성주현, 「대학의 교양교육론에 관한 시론적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1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152쪽.

적인 교육 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귀공자 귀공주” 프로그램은 향후 종교 교과 교육의 적절한 대안적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최근 서울소재 W 고등학교에서 개발 운영하는 “아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 결과 청소년의 밝은 사고 증진, 평온한 정서함양, 훈훈한 행동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²⁾ 종립학교에서 종교 교과 교육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인성교육, 철학 등의 내용으로 교수-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장교육의 배경에는 종교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의 부여를 위하여 복수교과 설정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둘째, 교재개발 및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종교교육의 발전적 지향점을 찾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교과서 등을 비롯한 교재 개발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되어야 하며, 다른 종단처럼 교사연수를 비롯한 재교육 시스템도 공동체 중심으로 개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09년도에 교육과정평가원의 수탁과제인 『종교』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 연구를 종교학회와 종교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¹³⁾

끝으로 교립대학인 원광대학교에서 개설, 운영하는 종교교육이 다른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도 다가설 수 있고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광대학교에서 종교 교과교육으로는 “종교와 원불교”, “선과 인격수련”, “21세기 종교문화”, “한국종교문화와 원불교”, “마음과 행복”, “죽음학의 이해”, “현대사회와 선”, “덕성훈련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종교와 원불교는 다른 종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양필수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필수로 운영되는 만큼 대학 설립의 이념적 기반을 이루는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다종교 신앙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 호응하는 교과목으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발전적 변모를 요구받는다. 한편 비교적 최근 개발된 “마음과 행복”은 선택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높은 호응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과목으로 떠오르고 있다.¹⁴⁾ 이는 대학에서 종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제공해주는 단면이라고 본다.

12) 김은진,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2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205-208쪽.

13) 김귀성 외,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표시과목 『종교』의 교사 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교육과정평가원 지원에 의한 연구, CRE 2008-6-15

14) 김귀성, 「대학생의 영성교육프로그램이 영성, 영적안녕, 자이존증감에 미치는 영향」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1(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275-306쪽.

4. 사회적 확산: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원불교에서 종교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인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이라고 여겨진다. 예컨대 “마음대조공부”와 “온삶 마음공부”들이 그렇다. 이 밖에도 교단내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사례들로는 교화훈련부 청소년국,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등근마음사담연구소가 공동개발 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마음공부”, “심심풀이 M3”, 마음인문학 연구소가 개발한 “아름다운 사람”, “케어마인드”(Care Mind), 새 삶의 청소년 마음공부 프로그램인 “원학습코칭”, 원창학원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귀공자 귀공주 프로그램”, 휘경여중과 경주화랑고, 원경고등학교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마음발 가꾸기, 군종교구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습관다이어트”, “소원이루기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¹⁵⁾ 기타 대전충남교구에서 개발 운영하는 “소태산 마음학교”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프로그램들로는 심심풀이 프로그램(Stop, Think, Action, Review), 그리고 삼동원의 마음공부 프로그램, 교립학교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인성함양을 목적인 마음공부 프로그램들(귀공자 귀공주 프로그램, 마음발 가꾸기, 마음과 행복 등)을 들 수 있다. 마음과 행복 등 관련 프로그램들은 객관적으로 그 효과가 일부 검증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개인 치유에 머물지 않고 대타적 측면 즉,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이르기 까지 포함한 마음공부로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를 들 수 있다. 둘째, 대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 형식과 체제를 높일 것 등이다.

특히 지난해 201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종교계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전에 비해 더욱 일정한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교세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은 적절성도 적합성도 떨어진다. 오히려 이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비롯한 국민의 도덕성 함양에 종교가 무엇을 어떻게 담지해야 할 것인가를 고뇌하고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른바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법률 제13278호, 공포2015.3.27, 시행 2016.9.28)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뢰 등 도덕성이 사회적 자산으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이다. 따라서 종교가 자신의 종교에 고착됨을 넘어 이웃과 공동체에서 목마르게 요청하는 인성 및 도덕성 함양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적절하게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의 새로운 종교교육의 비전도 이와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사회적 과제로

15) <청소년 교화키워드 인성교육>, 《원불교신문》, 제1712호(2014. 6.27, 금).

16) 김은진,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4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72-77쪽.

등장한 인성교육, 도덕성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일이다.

Ⅲ. 결론: 비전과 전망

종교교육학회(2005년)에서는 종교교육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한 차례 수행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손원영 등(2005)의 연구에서는 종교교육학 연구에 대한 분석의 준거 틀로써 협동연구, 이론과 실천의 균형, 종교간 관용, 여성 참여도, 국제성, 교육현장, 후기 현대성, 교육의 구성요소, 연구방법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준거에 비취 종교교육학 연구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¹⁷⁾ 위에서 이론과 실제 간의 적절한 균형, 국내와 국외의 연구 간에 적절한 균형, 시간적 맥락에서 과거와 현재간의 적절한 균형 등을 유지할 것을 지적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공유되는 바이다.¹⁸⁾ 이상에서 원불교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성과, 공교육에서 활동, 사회적 확산 등에 대한 성찰의 결과에 비취 향후 원불교 새로운 종교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육에 관한 학술연구는 종교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보다 명료히 하면서 개별 연구자에 의존도를 넘어서 공동연구, 학제간적 연구 활성화와 학교, 가정, 사회라는 공간과 시간적 범주를 넘어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육 연구가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보다 정교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의 질적 수준의 제고 뿐만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적 기여에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적 접근 외에도 주제에 따라서 질적 연구, 양적 접근, 인류학적 접근,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접근될 필요도 있다.

둘째,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비전은 관련 법규와 제도의 변화와 함께 종교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 방과 후 활동에도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한 교과서 개발 등은 특정 개인 중심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종교교육학회 등의 공동체에서 주관하여 학생, 학부모, 종단 등과 긴밀한 협의하에 수행됨으로써 현장 적용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보급에 대한 노력이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원불

17) 한국 종교교육학은 개별 연구자에 의한 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 이론과 실천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 후기 현대적 주제에 대한 연구의 빈약, 교육의 구성요소에서 교육목적 및 연구방법론에 집중, 연구방법에 인문학적 연구방법에 치중하는 과제 등의 한계도 있지만 높은 종교적 관용, 양성평등적인 연구자의 분포를 보인 점은 높게 평가하고 있음(손원영·김지혜, 앞의 논문, 82-83쪽).

18) 유재봉, 「종교와 도덕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철학 40년」 『교육철학』 33(서울: 한국교육철학회, 2005), 94-95쪽.

교의 종교교육 관련 연구결과가 사회와 공유되지 못하면 학문 공동체의 대사회적 책무성을 상실하게 된다. 종교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비단 개인의 치유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호흡하면서 발달 단계별로 다양하게 이뤄짐으로써 원불교에서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는 종교교육 프로그램이 이웃 종교 또는 사회에 확산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인적 자원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된다. 학문 공동체의 연구 활성화, 중등학교 현장의 종교교육 발전, 종교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물적 기반의 확충이 절박하다. 특히 인적 자원의 확충은 국내·외 유관 단체,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접근될 필요도 있다. 원불교의 새로운 종교교육의 비전을 위해서도 인적 자원의 확충은 예외가 아니다. 현재 종교교육의 인적 자원 충원은 대부분 대학에 의존하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종교교육의 학문적 성격이 학제적 성격을 갖는 한 대학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원불교학 또는 종교학 전공 학과의 범주를 벗어나 심리학, 사회과학, 교육학 등 주변 학문에 이르기 까지 확대하여 인적 자원의 확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육의 연구, 교육, 사회적 기여 등이 발전 지향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관 기관은 물론 학교, 학계, 정부, 종단, 학생, 학부모 등 간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 조건이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종교교과) 및 교과서 개발 등은 앞선 사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특정 개인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전문 학술 공동체를 통하여 수행케 한다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불교의 새로운 종교교육의 비전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로드맵 제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참고문헌

- 고병철, 「한국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2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김용표,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창간호(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김귀성 · 류성민 · 고시용, 「종교교양교육의 활성화 방안」 『종교교육학연구』4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김귀성, 「대학생의 영성교육 프로그램이 영성, 영적 안녕,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61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 김귀성 외,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표시과목 『종교』의 교사 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 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교육과정평가원 지원에 의한 연구. CRE 2008-6-15.
- 김은진,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62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4).
- _____,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4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성주현, 「대학의 교양교육론에 관한 시론적 연구」 『종교교육학연구』1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손원영 · 김지혜, 「종교교육학 연구의 분석적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오인택 · 김창환 · 윤재홍, 『한국 현대교육철학과 교육사학의 전개』서울: 학지사. 2001.
- 유재봉, 「종교와 도덕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철학 40년」 『교육철학』33(서울: 한국교육철학회. 2005).
- 정혜정, 「종교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2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井上順孝, 『現代日本における宗教教育の實證的研究』研究報告書, 東京: 國學院大學, 2000.
- <초중교 교과서 불교오류 종단 차원서 대응>, 《법보신문》, 제1284호 (2015. 2. 27 금)
- <인성교육 실제 및 사례>, 《원불교신문》, 제1749호(2015.4.17 금)
- <인성교육진흥법과 원불교 기관단체협의회>, 《원불교신문》, 제1745(2015.3.20 금)
- <청소년 교화키워드 인성교육>, 《원불교신문》, 제1712호(2014.6.27 금).
-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www. nurf.go.kr](http://www.nurf.go.kr)

원고접수일: 2016년 1월 7일 심사일: 2016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5일

연구자소개: 김귀성

① 전공: 교육철학 및 교육사 / 소속: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동아시아비교교육, 한국교육철학, 지역교육(중국교육사)

③ 주요논저: 『현대교육사상』,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17세기 조선에 소개된 서구교육』등

④ E-mail: gskim@wku.ac.kr

Abstract

A new vision for Religious Education in WonBuddhism: focused on it's reflection and prospect

Kim, Gui Sung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retrospect the academic activities and present the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seeing Association's 20th anniversary come around. For this I'd like to analysis the academic activities from establishment of this association to nowadays and based upon those I am going to present the vision for this Association and WonBuddhism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clear the academic identity and for better development clear the research object as good as variety of research themes. Second, it needs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 among academic community. Third, it need to make a better effort to spread out of research out put to society. Fourth, it need to elaborate the research methodology. Fifth, Extending the research infra-structure. Finally I am going to present the some tasks as follows for the WonBuddhism. 1. Furthermore, it need to extend the human resources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2. For the develop the soft ware, it need to invest the material and manpower, most of all, feel social sympathy. Recently it need to respond the social needs how to band with Human nature education, adjustable program for each ages. At the end, It need to take a life long education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Because Life long Education paradigm rationalize the extending the approach basically includes school education, home and social education and also all life span.

Key words: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 Research in Religious education, WonBuddhism, Program Research & Development for Religious Education